

# '개혁·미래' 불서에 관심집중

## 예리한 현실비판 속 변화요구 수용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불교와 불교인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책들이 불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의 개혁바람이 불서출판가에도 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땅의 쇠락소리》(포스트모던사회와 열린 종교) 《오늘의 사회문제, 그 불교적 대응》은 오늘의 불교현실과 우리사회를 진단하고 나아가 방향을 진지하게 찾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비판 또는 일종의 불교이해학으로도 읽힌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며 《진화기의 한국불교》(윤이안은 부처)로 불자들에게 낯익은 공종원씨의 세번째 칼럼집인 《이 땅의 쇠락소리》(불교)는 불교의 현재 모습, 불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 불교인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공종원씨가 보는 한국불교의



개혁을 촉구하는 불서들은 미래사회에 대응할 불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불교이해학으로 읽힌다.



조계종 분류와 개혁을 다루고 있는데, 그는 3.29 조계사사태를 보며 '불교개혁에 앞서, 지도적 승려들이 권력과 재물과 명예욕으로 해서 얼마나 썩어있고 얼마나 부처님의 정법을 호리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하며 '비극'을 넘어서는 승려들의 합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모든 것이 승가에만 쏠려질 문제는 아니다. 해결은 불교인 모두의 몫임을 지적한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책무와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 행할 때, 그리고 자비와 자혜의 삶을 통해 산업을 쌓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불교인들 스스로 자신의 신앙태도를 되돌아보는 일에서 변화는 비롯된다는 점을 일깨운다.

아울러 불교를 위한 기업을 일으켜 그 수익금으로 일본불교전도협회를 창립해 포교에 헌신하고 있는 누마다(沼田)씨, 현대 일본교육의 지표를 제공한 박재승씨 최정(崔正), 그리고 강원도 땅주 태백산맥 기슭에서 직접 생산불교와 생산도량을 일구는 명진스님의 실천하는 신행사에서 그 대안을 찾고 있다.

《포스트모던사회와 열린 종교》(민음사)에서 김희성교수(서강대 종교학)는 미래사회를 문명사적 전환점이라고 내다본다. 포스트모더니즘, 즉 이념의 다원성이라는 개념을 도입, 21세기에는 정신적으로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의 나이가 혼란과 불안감의 시기일수도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각종교는 사상의 재정립운동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한다.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김교수는 종교간의 배타성 극복에서 희망을 찾는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미래사회에 대한 종교의 책임은 특정종교에 주어지지 않거나 모든 종교의 것이며, 따라서 종교간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자는 당부 받아들이자.

교수불자연합회의 다섯번째 논문집인 《오늘의 사회문제, 그 불교적 대응》은 오늘의 우리사회의 문제를 범죄와 환경파괴, 가치관의 혼돈으로 분류하고 전 공자들의 논문으로 해답을 찾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에서 불교사민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밖에도 서울대 심재봉교수(철학)의 《부처님이 유수 없는 땅》도 꾸준히 내일의 지평을 바라보는 불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불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성운 기자)

### 명사추천 불서100선

무문해계의 무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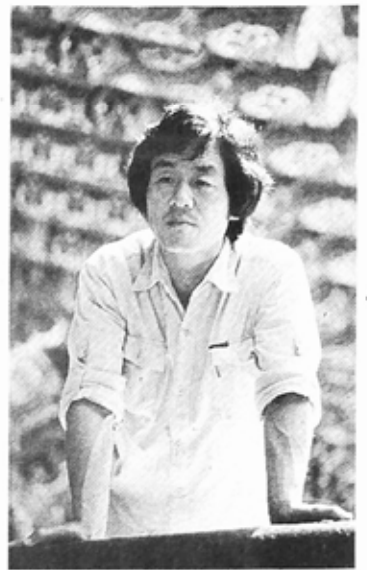
## 손가락 저쪽의 달을 보게한 책

이념 싸움에 한창 치열하게 벌어진 그 무렵에 내가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그때의 각박함 속에서 나는 심신이 쇠약해 있었다. 육체는 병들고 마음에는 불안과 불안과 울분이 커져서 쌓여 있었다. 그런 나에게 불심으로 종을 삼고 무문으로 법문을 삼아야 한다는 이 책은 훌륭한 약재 구실을 하였다.

이 책은 결국 내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문 없는 문》이란 어떤 문인가. 처음 그 애매모호한 그 문이란 것은 내 의식을 아득하게 하였다.

살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조사의 말에 의하면 이리이러하고, 어떤 책에 써어 있는 대로 한다면 오히려 옳다. 그러므로 이리저리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흔히 있는 문이요,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아픈 삶에 좋은 처방이 될 수 없다. 이 책은 바로 그 문을 거부하고 있었다.

너는 자본주의자이나 사회주의자이나, 신봉이나 악마주의나, 선종이나 악종이나, 기독교와 여호와의 증인이나, 불교의 석가모니를 믿느냐, 노동자편에서 있느냐, 사용자편에서 있느냐... 그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은 자꾸 어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택을 하라고 강요한다. 그 어느쪽도 아니라고 하면 회색분자라고 따돌렸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한승원 <소설가>

### 공안48칙 거듭읽고 선 세계 어렵듯 체득

왜 여호와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석가모니쪽으로 나아가려 하느냐고 욱해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원적인 생각을 가지게 한다. 바다나 강변에 나가도 파도만 볼 뿐 물은 보지 못한다.

절이나 교회는 무엇인가. 석가모니나 예수는 무엇인가.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 달 그 자체는 아니다.

나는 흥미한 역사와 사회와 나의 눈뜨지 못한 미망 속에서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다. 한데 그 이원적인 대립 갈등의 물 속에서 일원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파도 위에 갈수록 거져 있는 물은 볼 수 있게 하고 손가락 저쪽의 달을 볼 수 있게 한 것이 이 책이었다.

나는 이 책의 48칙을 읽고 또 읽었다. 잘못 맞춘 그것을 노루배 삼년 고와 먹듯이 두었다가 읽고 또 두었다가 읽었다. 어느날 나는 그 48칙들이 모두 공명된 본도를 가진 것

임을 알아차렸다.

《오랑캐한테는 왜 수월이 없느냐》(차나 한 칸 하십시오) (개한려 불성이 없다고 한 것) (부처님은 통치는 막대기이다)...

우리의 삶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자연스러움은 차별심이 아닌 평등심의 삶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눈치챘고, 선이라는 것도 그것과 멀지 않은 거라는 것도 어렵듯이 체득하였다.

이후로 나는 늘 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가면서 사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곤 하는데 그때 이 책이 길잡이가 된다.

※(무문관)의 한계는 (선종무문관)으로 승나라 무문해계(無門)가 공안 48칙을 읽고 각각 열제(熱提, 열사의 말)를 자기의 소견으로 해석하고 비판한)와 승을 합친 선서, 우리나라에서는 이회익씨가 풀어서 소개했다(경서원 간행).

### 이야기 한국불교사



불자들의 목숨을 건 구도정진과 발심수호의 정신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불교사에 대한 열거와 외면에서 출발한다. 왜 고려불교는 기복불교이며 의례불교인가. 또 조선의 불교가 어찌 생명을 잃은 허무의 불교 본인가 되고 되풀이되는.

### 새로 나온 책

와 역사발전에 어떤 사람이 이바지했는가?가 인물평가의 기준을 밝히고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의 발굴과 오랜 세월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밑 값 7천6백원.

▲불교의 체계적 이해 (고익진 지음) = 대소승의 중요경



진인 아함 반야 법화 등 삼부경을 논리정연하게 연결시켜 불교를 대소승으로 분리하지 않고 근본교설을 통합 서술하고 고익진 박사의 불교학개론서. 이 책에서 저자는 '불교공부에는 무엇보다 경전에 의지해야 할 것'이라며 '흔로 교요한 곳에서 곱씹어 생각'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새터, 7천원.

▲대지관좌선법 (천태지자

지음) = 선학의 2대 주류인 달마선과 지관선 가운데 지관선의 요체인 천태지자 대사의 '대선지관법'을 우리말로 주석을 붙여 쉽게 풀어 쓴 선수행서. 주석자는 이 책을 통해 달마선에 편향된 한국불교 선학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운우사, 8천원.

▲마리쿠성지를 찾아서 (정만 역음) = 지난 92년 (관음성지를 찾아서)에 이어 저자가 충남 관촉사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리쿠성지 8곳을 순례하며 그곳에 얽힌 설화와 영험 등의 자료를 기행문식으로 쓴 일종의 신앙안내서. 이 책에서는 주로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부록으로 관촉사 사적명을 실었다. 우리출판사, 5천원.

▲이야기 한국불교사 (김현준 지음) = 역사는 언제나 새롭게 쓰여진다. 오늘 이 땅을 일구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삼의 좌표를 찾고자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야기 한국 불교사>도 이러한 요구가 낳은 산물이다.

기행에 나온 한국불교사는 여럿 있으나 이 책은 다른 위치에 놓인다. 이유는 저자의 한국불교사를 보는 관점이 철저히 신앙적이라는 것이다. 즉,

### 이 주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예시안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도(道)	김정민	글주례
2	무(無)	김정민	글주례
3	알기쉬운 불교	불교방송 편성제작국	불교방송출판부
4	명함순례(2)	최완수	대원사
5	혼자살기엔 너무 아름다운 세상	황정원	책 만드는 집
6	자네 도가 뭐지 아나	효림	대원정사
7	부처님 땅 1	이정범 외	불지사
8	불교상식백과(하)	홍사성 편	불교시대사
9	불교사 100집	임혜봉	가람기획
10	100문 100답	정승석	대원정사

### 출판 단신

무비스님 안역 화엄경  
예약판매, 민족사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는 무비스님 안역편찬 화엄경을 예약판매한다. 80권본 화엄경의 원문도 함께 수록해 번역문과 함께 참조 권리를 도모했으며, 경전의 주요어휘를 알기 쉽게 풀이한 화엄경소사전도 덧붙여 별첨으로 간행했다. 민족사판 화엄경은 전40종의 완역으로 무비스님이 10여년에 걸쳐 번역을 마친 것이다. 전12권 10만원으로 10월 30일까지

예약 받는다. (02)732-2403.4

‘빛깔있는 책’ 문화대상

서울정도 6백주년 기념으로 실시된 '94 서울도서상'을 시인공모에서 도서출판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 시리즈 가운데 서울에 관한 도서 10권이 대상을 차지했다. 수상도서는 <한국의 풍경> (황영준) <황영준> (비원) <종교와 사회> (역수공) <북한산신> (한강) <내가 지난 서울> 등이다.

반야심경약소 보물지정

문화체육부는 지난 17일 (반야심경약소)를 보물

제1211호로 지정했다. 이 책은 반야심경에 대한 주석서로 승나라 율희(律希)가 법장의 반야심경약소에 자신의 경험을 붙인 것이다. 불교문화사 및 서지학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문체부 장관상 수상

이규택 경서원대표

불서출판 경서원 이규택대표가 94년도 출판부문 공로자로 선정돼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빛의 날'인 지난 11일 출판문화회관 광장에서 출판문화계 인사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 불교에 대한 관성적 관념을 그 근저에서부터 부정하는 비판서

## 연기와 공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런 고민없이 불교의 기본적 교리라고 믿고 있던 관념들을 무리채 뒤집어 놓는 책. 불교의 중심사상은 여래장사상인가. 연기설인가? 이 양자는 양립가능한 것인가? 양립불가능한 상반된 것인가? 상반된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왜 버려야 하는가. 이 책은 그 해답을 줄 것이다.

松本史朗 著, 혜원역, 신국판, 352쪽, 6,500원

대지관좌선법(마하지관) 1,2 김무득 주석, 각권 8,000원

능엄경연구입문 김진영 저, 15,000원

조선불교유신론 한용운 저, 5,000원

돈오요론 대주해해 저, 해원역, 5,000원

마리쿠성진 이종익 저, 3,500원

백교회통 이능하 저, 4,500원

.....

도서 **은주사** 출판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02)720-9372 3 Fax (02)723-0646

## 산천 경계와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도 부처님의 참뜻은 하나더라.

현오스님과 함께 떠나는 미얀마 72일, 위빠사나 수행기

남방불교 수행 제일의 나라 미얀마.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 그곳에서 철저한 계율과 경전에 의거한 수행방법을 공부하고 돌아온 현오스님이 한국불교에 띄우는 메시지.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에 충실하자! 수행은 결코 승려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신심만 있으면 누구나 깨달음의 세계로 들 수 있다!

신국판 224쪽 4,300원

이 책의 저자인 현오스님은 '75년 오대산 월정사에 입산. 최단 노사로부터 득도한 후, 재방선원과 토굴 생활을 거쳐 '93년 미얀마의 미해시 수도원에서 위빠사나를 수행했다. 현재는 강원도 홍천군 나촌면 토굴에서 정진중이다.

펴낸곳: 디오아 기획·출판 사업부  
주요저: 도서출판 논정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02) 332-8369